

## 케냐 대선 후보자 주요 공약 및 전망

이보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(✉ bylee@kiep.go.kr)

## 주요내용

- ▶ 케냐 대선(8월 8일)을 앞두고, 재선을 노리는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4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라일라 오딩가 前 총리는 각각 6월 26일, 27일 주요 공약을 발표함.
- ▶ 現 케냐타 대통령은 주요 3대 공약(삶, 사회, 국가 변화)을 중심으로 여러 지표를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함. 한편, 오딩가 前 총리는 7대 공약을 내세우며 지방분권화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.
- ▶ 케냐타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나, 現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실패, 보건부 부패 스캔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져 오딩가 후보의 역전 가능성도 존재함.

## 1. 이슈 현황

▶ 케냐 대선(8월 8일)을 앞두고, 재선을 노리는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<sup>1)</sup>과 4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라일라 오딩가 前 총리는 각각 6월 26일, 27일 주요 공약을 발표함.

□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약 5~9%로 이번 대선에서 상당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

- 5월 Radio Africa Group의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주빌리(Jubilee)의 케냐타 대통령이 49%의 지지율을 보이며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, 야권연합 경쟁후보인 오딩가는 지난 2달 동안 약 15% 이상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지지율 격차를 줄이고 있음.<sup>2)</sup>

1) 조모 케냐타 초대 대통령의 아들로, 2013년 4대 대통령으로 취임함.

2) NKC African Economics, (2017.6.29). 'Talking Point: Kenya - Promises promises as parties launch manifestos'

그림 1. Radio Africa Group 여론조사 (201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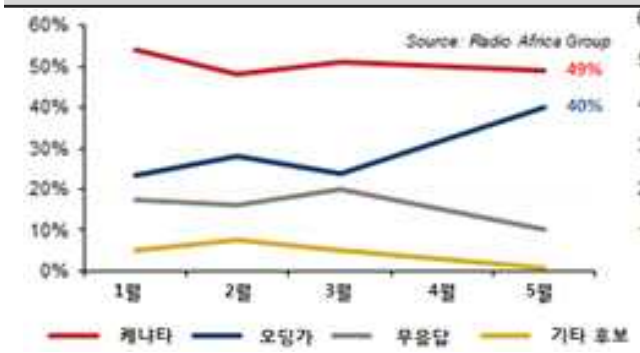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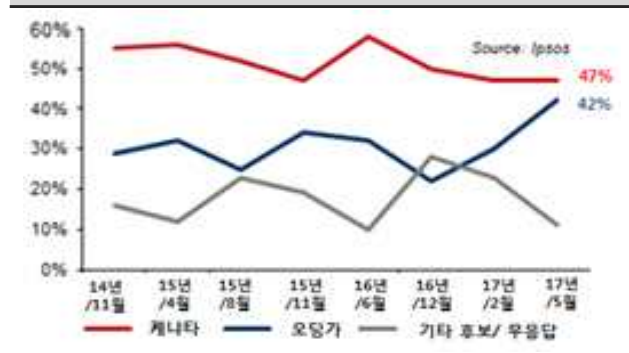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Ipsos 여론조사 (2014-2017)



## 2. 원인과 분석

➤ 現 케냐타 대통령은 주요 3대 공약(삶, 사회, 국가 변화)을 중심으로 여러 지표를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함. 한편, 오딩가 前 총리는 7대 공약을 내세우며 지방분권화정책<sup>3)</sup>을 강화하겠다고 밝힘.

□ 케냐타 대통령은 국가발전전략인 'VISION 2030'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.

- 2008년 발표된 국가발전전략 VISION 2030은 2030년까지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며, 주요 10가지 과제를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이행하고 있음.

□ 오딩가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기반으로, 급등하는 식량가격과 물가상승에 대한 정책수립을 47개 지방정부에서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힘.

- 2016년 8월 케냐에 닥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가격과 물가가 급등하였으며, 야당은 정부가 대응에 실패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.

표 1. 케냐타와 오딩가의 주요 공약

케냐타	공약	오딩가
3대 정책	주요 내용	7대 정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삶 변화 (보건서비스, 교육, 주거 환경 향상)</li> <li>- 사회 변화 (굿 거버넌스, 부패척결)</li> <li>- 국가 변화 (인프라 구축, 산업 다변화)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통합과 치유</li> <li>- 역사적 불평등 해결</li> <li>- 약자의 평등 실현 (여성, 아동, 장애인)</li> <li>- 지방분권 강화</li> <li>- 정부 개혁</li> <li>-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</li> <li>- 가난, 실업 근절</li> </ul>
임기동안 650만 개의 일자리 창출	일자리	7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선정
2017년까지 3,300만 명(전체 인구의 72%)에게 전력 공급 및 접근성 향상	전력	전력 가격에 초점을 맞춰 저소득층 가구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 우선 공급

주: WB(World Bank)에 의하면, 2014년 케냐의 전력 접근성은 전체 인구의 36%밖에 되지 않음.

자료: Kenya NTV, NKC African Economics를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

3) 소수민족 집단의 숙원사업인 지방분권화 정책은 2010년 케냐 신헌법(2010 Constitution of Kenya)으로 공포됨. 8개였던 주를 수도 나이로비 외 46개주로 개편하고,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분권화해 카운티 지방정부 체제에서 자치권 행사가 가능해짐

▶ 케냐타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나, 現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실패, 보건부 부패 스캔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져 오딩가 후보의 역전 가능성도 존재함.

-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1년 새 50%이상 증가하였으며, 작년 12월 물가상승률이 6.4%였던 것에 반해 올 6월은 9.2%에 달함.<sup>4)</sup>
- 케냐타 정부는 나이로비 테러 공격, 부패 스캔들, 의사·간호사·교사 파업 등 끊임없는 사건사고를 난행을 겪고 있으며,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국민의 질타를 받아옴.

### 3. 전망과 시사점

▶ EAC(동아프리카공동체)의 주도국으로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케냐의 대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. 한편 선거결과와는 별도로 이번 대선이 안정적으로 치러질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함.

- 2007년 대선에서 개표부정 시비로 유혈사태가 일어나 1,000여명이 사망하였으며, 종족 간 갈등과 전국적인 폭력 및 소요사태가 발발
  - 케냐는 다양한 민족구성에 따라 종족에 따른 지역분할주의 성향이 강하므로, 다수 지역 표심<sup>5)</sup>을 획득하는 것이 선거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. **EMERiCs**

#### 참고문헌

- Ipsos, Kenya NTV, NKC African Economics, Oxford Analytica 등

#### 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4) Oxford Analytica, (2017.07.03.). 'Kenyan infrastructure gains will mask slippage risks'

5) 대통령은 직선제로 5년 임기이며,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 및 47개주 중 적어도 24개의 각 지방에서 25%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 함